

Nr. 2023 - 09-10

鈕



Licht und Salz

순교

편집부

한국 천주교회는 한국에서 신앙을 지키고 천주교 정착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103인의 성인들을 기리기 위해 9월을 순교자의 달로 지정하였습니다. 한국은 천주교가 정착하기까지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신부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시작으로 많은 이들이 정착 과정에서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순교 성인들은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 모진 고문을 받아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오히려 옥에 갇혀 있는 와중에도 서로 도우며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순교자의 달에는 단순히 순교 성인들을 기리는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순교 성인들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지 생각해보고 각자 자신들의 신앙심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았으니 여러분은 내 말을 꼭꼭히 들으십시오.

내가 외국인들과 교섭한 것은 내 종교와 내 하느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천주께서는 당신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는 까닭입니다."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유언-



7월 청년미사



최창덕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

순교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사제와 함께 / 허광철 요셉 신부님

-

살아가는 이야기 / 전영민 수산나

공소 글 (뵈르츠부르크) / 허수연 레지나

복음글



2023년 빛과 소금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행됩니다.

1,2월 시작 (Neuanfang)

3,4월 평화 (Friede)

5,6월 감사 (Dankbarkeit)

7,8월 휴식 (Pause)

9,10월 순교 (Martyrium)

11,12월 성찰 (Reflexion)



7월 21일 성모회 Birkenstein 소풍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붙겠다.>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33,7-9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 "너 사람의 아들이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8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이야,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네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붙겠다.

9 그러나 네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하상 바오로 성인과 상재상서 上宰相書

허광철 요셉 신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과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에게 당신의 복을 내려주시고, 당신의 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모태에서 태어나 장성할 때까지 가지가지 은혜가 이와 같이 한이 없으니, 인간의 마땅한 본분은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티끌에 이르기까지 모두 천주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를 내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목숨이 길다 해도 백 년을 넘기지 못하는데 자기 이익만을 탐하여 얻지 못한 것을 얻으려 애쓰고, 이미 얻은 것을 잃지 않으려 걱정하는 사이에 어느덧 늙고 만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 정신이 흐려져 깨닫지 못하다가 육신이 죽은 뒤에 뉘우친다 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몸도 장차는 죽을 목숨이오니, 감히 말해야 할 이 시각을 만나 한번 머리를 들고 길게 외치지 못하고 슬프게도 입을 다물고 죽어 버린다면 산같이 쌓인 회한을 장차 백 대 후세에 이르기까지 폭로할 길 없기에, 앞드려 청하오니, 도리가 참된지 거짓인지, 올바른지 그릇

된지 자세히 판단한 다음, 옥에 갇힌 사람들을 석방하고 온 백성이 모두 제 고향에 돌아가 제 직업을 즐기면서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천번 만번 바라고 또 바랍니다.

(9월 20일 독서기도 두번째, 김남수 주교 편역 상재상서 中)

9월 순교자성월에 정하상 바오로 성인(1795-1839)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103위 한국 성인 중에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이어 두 번째로 불리어지는 정하상 바오로(1795-1839) 성인! 성인의 아버지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1801년 신유 박해순교자)이고 정약용 요한이 정약종의 형이니 숙부가 된다. 어머니는 유조이 체칠리아로 1839년 기해박해 때 정하상 성인과 함께 순교하신다.

아버지가 순교할 때에 겨우 일곱 살, 하지만 그는 어머니로부터 기도와 교리를 배우고, 북경에 가서 세례와 견진과 성체성사를 받고 성직자 영입운동을 전개하고, 유방제신부님과 모방, 샤스탕 신부님과 앵베르 범 주교님까지 모셔들여 자신의 집에 모셨다.

앵베르 주교님은 바오로가 사제가 되기에 적당하다고 여겨 라틴어와 신학

을 가르치던 중 박해가 일어나자, 정하상 성인은 주교님을 피신시키고 순교의 때를 기다리며, 이미 체포될 때를 대비하여 ‘상재상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조선교회 최초의 호교론이다. 그는 이 속에 박해의 부당성을 뛰어난 문장으로 논박했기 때문에 조정에서까지 이 글에 대하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1839년 7월 11일 포졸들이 정하상의 집에 달려들어 그와 노모 유체칠리아 그리고 누이 정정혜 엘리사벳을 붙잡아 포도청에 압송하여 바오로와 4대 조상까지의 이름을 명부에 올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튿날 상재상서를 포장 대리에게 주니 사흘 후 문초를 시작하였다. 바오로는 무서운 고통을 강인하게 참아나갔고 배교하라고 엄명하였으나 거절하자 옥에 가두었다. 며칠 뒤에 다시 끌려나와 툇질 형을 받아 살이 떨어져 나가고 골수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또한 그는 샤스탕과 모방 신부의 은신처를 대라고 했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그 후 두 신부가 자수한 다음 또 심문을 받고 세 차례의 고문을 받았다. 그리하여 9월 22일, 서양 신을 나라에 끌어들이는 모반죄와 부도의 죄명으로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45세였다. 최초의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 순교자, 호교론자로서 그의 무게는 만만치 않다.

상재상서 上宰相書

상재상서는 1839년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 쓴 글로, 한국 최초의 천주교 호교론서(護敎論書)이다. 상재상서(上宰

相書)의 뜻은 ‘재상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으로, 당시 천주교 박해의 주동자였던 우의정(右議政) 이지연(李止淵)에게 보낸 서신이다.

‘상재상서’는 순교를 각오하고 작성한 양심 선언이자 신앙고백으로서 이벽의 ‘성교요지聖敎要旨’, 부친 정약종의 ‘주교요지主敎要旨’와 더불어 조선 천주교도들의 천주교 인식과 신앙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정하상의 예상대로 헌종5년(1839) 6월 초하루 포졸들이 집에 들어 닥쳤다. 정하상은 스스로 집안에서 붉은 오라로 자신을 결박하고 나갔고 모친과 누이 동생도 함께 체포되었다. 정하상은 미리 준비한 ‘상재상서’를 관원에게 전한다.

‘정보록 일기’에 따르면 관원이 “너는 어째서 조선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다른 나라의 도리를 행하는가?”라고 묻자 “다른 나라의 훌륭한 물건은 사람들이 모두 골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유독 천주 성교는 다른 나라의 도리라고 말하면서 그 참되고 올바르며 훌륭한 것을 채택하지 않습니까?”라고 답했다고 적고 있다. ‘상재상서’도 그가 주장하는 바이다.

200여 년 전 이미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신 이 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커다란 모범이 된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한 자기 인식과 확신이 있었고 아울러 진리앞에서는 죽음도 두려워 하지 않는 예수님 참 제자의 모습을 견지하였다.

“한 번 머리를 들고 길게 외치지 못하고 슬프게~~~~”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뭐지?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나는 진리 앞에 당당한가? 우리 공동체는 순교자의 후손이 맞는가?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미 정하상 성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이다.

“천주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에게 당신의 복을 내려 주시고, 당신의 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각 개인은 물론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이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리 앞에 당당한지 끊임없이 성찰해 볼 일이다. 진리가 아닌 것에, 하느님의 것이 아닌 것

들에 얽매어, 소위 악의 유혹에 휘둘러 흔들거리는 그래서 곧 쓰러질 나무는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공소 공동체를 포함 우리 공동체는 팬데믹 이후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 안에 진정한 믿음과 서로 간의 인내와 사랑, 일치의 공동체에 대한 희망이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하여야 할 것이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2티모 4,2참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봉사하는 선한 이들이 많아질 때 공동체는 살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루카 19,26)라는 말씀을 몸소 체험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아멘.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6월 24일 Altötting 성지순례



6월 24일 Altötting 성지순례 2

거룩한 변모와 세계의 초막

전영민 수산나

성 경구절에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이야기가 나온다. 제자들, 베드로와 야곱 그리고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선 높은산 (타보르산?)에 오르셨다. 그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 나서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 하셨다고 한다.

그 현황에 베드로는 감동이 넘치고 너무도 황홀하여 얼떨결에 거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지내기를 주님께 권한다. 예수님께선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 다만 지금 일어난 상황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당부만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고 한다. 수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변모를 부활에 대한 예고였다고 해석 한다. 여기서 특별히 논 하고자 하는것은 이 세계의 초막이다. 21세기를 살고있는 교회에서도 이 길을 가고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유럽 전체를 볼때 2차 세계 전쟁후에 폐허가 되었던 도시들이 다시 세워지고 산업적으로도 크게 부흥하면서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다. 물론

인구수도 늘어나고 그에 대응하는 기관들이 필수로 지어진 것이다.

비유적인 측면에서 볼때, 카톨릭 교회에서도 세계의 초막보다 엄청 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졌고 그 건물들 또한 호황 찬란하다. 그런것에 비하면 아프리카나 브라질 그외에도 여러 나라들의 열악한 교회상황을 보면 독일이나 다른 유럽국가들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인것이다. 도저히 정상적 이라곤 생각할 수 없는것이다.

우선 독일만 보더라도 혼배성사로 교회에서 부부로 맺은 사람들 또는 유아 세례, 견진성사자들의 숫자는 지난 30년동안 60%가 역행을 하였고 해마다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의 숫자도 엄청 난다고 걱정스럽게 매스컴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앞으로의 추세를 볼것같은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하향세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것이다.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는 보잘것 없다는 말이다. 좋은 반석이 되었어야 할 이 세계의 초막은 앞으로도 잘 견제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두려워 할것은 없다는 것이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 이는 내 사

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고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말씀을 희망으로 붙잡고 용기있게 나아가고 있기때문이다.

문헌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한국인들 중 유럽이라는곳, 더 좁은 의미에서 바리에른주에 몸담고 살고있는 천주교인들이다. 강 건너 불보듯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선 안된다는 생각이드는것이다. 우리 위에는 교황님이 계시고 카톨릭교회의 중심지인 바티칸에서 열리는 모든 지시 사항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저 무릎위에 손을 올려놓고 돌아가는 꼴만 보아서는 아니될것이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안고있는 부조리를 우리 개인으로선 어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방관하는 자세는 더더욱 아닌것이다. 시기, 질투, 혐오 등등의 말 자체가 교회안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는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본 책무이어야 할것이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요 우리를 양육하는 어머니이며 하느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라는 인연을 맺고 있는것이다. 고향같은 포근함 속에서 하느님의 품안에 안겨있는 어린이 같은 느낌을 주어야 교회는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는것이다. 하느님은 사

랑이시고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번달 주제는 순교이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초창기엔 사제도 없었고 제대로 번역된 성경이나 교리 주해서도 없어서 아주 열악하기 짝이없는 시대였다. 그 어려운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혹독한 박해가 전 나라를 휩쓸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참수형으로 성인품의 월계관을 쓰신 우리의 거룩한 조상님들 그들이 세우신 신앙의 반석위에서 우리들은 자유롭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믿음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할 따름이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시골길을 걷노라면 십자가 고상이 길 가장 자리에 서있는것을 볼 수 있다. 담쟁이 넝쿨이 그 십자가고상을 휘감고 위로 뻗어가는것을 보고서 무언가 느낌이 들어왔다. 그곳에 십자가고상이 없었다면 위로 뻗지못하고 바닥에 널 부러져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고 아픔을 많이 당했을것이다 아니 죽고 말것이란 생각도 든것이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몫이 있는것이다. 예컨데, 십자가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인도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볼인것이다.

조그만 아이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산비탈에 열려있는 산딸기를 따 모으고 있다는것으로 Franz von Sales (1567-1622) 성인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셨다. 이 말씀인즉, 살아가면서 세상

의 좋은것을 얻을 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도, 잃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편협한 생각으로 두손으로 모을 때 더 많은것을 얻으리라는 어리석음으로 모두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는것을 말해 주신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좋은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양들은 나의 목소리를 듣는다" 고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좋은 양들 일까? 🏴☠️



6월 24일 Altötting 성지순례 3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3,8-10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3,8~10

형제 여러분, 8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9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8월 15일 본당의 날 미사



8월 15일 본당의 날 미사 후 그릴

순교

허수연 레지나 (뵤르츠부르크 공동체)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을 기리고 공경하기 위하여 1년 중 9월을 순교자 성월로 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순교자 성월이 한국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렇다면 어찌하여 한국에만 순교자 성월이 있고, 순교자 성월이 9월인 것인지입니다. 조선시대에 사형 집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을과 겨울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9월에 순교자가 많은 이유이며, 조선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가 9월 16일에 순교한 이유라고 많은 이들이 짐작합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총 4차례(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해)나 전국적 규모로 이루어진 박해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이들이 이름도, 세례명도 남기지 못한 채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해 순교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하고 숭고한 순교자들의 결단과 희생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감명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음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순교라는 개념이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와닿거나 친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교란 종교적, 사상적 혹은 정치적 박해가 이뤄지던 때에나 어울릴 법한 고전적 내지 역사적 개념과 의미로 현대인들에게 익숙하고, 또 그렇게 접하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은 종교와 정치,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순교라는 개념과 그에 대한 의미는 더욱이 현대인들에게는 낯설고 먼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과 의미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순교자들의 숭고하고 거룩한 희생과 정신을 진정으로 기리기 위해서, 순교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관점을 재고해야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순교의 기존 전통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순교의 기준과 관점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작업이 오늘날에는 더 적절해보입니다. 즉 복음을 위해 고문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종교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 그리고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순교라는 기존의 엄밀한 의미에서 확장 및 확대하여, 순교라는 개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합하도록 현재화시키는 작업이 필요

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의 의미를 새롭게 확장하는 작업에 앞서, 탄압과 박해에 대한 오늘날에 적합한 새로운 관점 내지 시각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순교를 비롯한 모든 순교는 탄압과 박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탄압과 박해가 존재하는 곳에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순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있어 보입니다. 조선시대와 달리 오늘날 한국에는 종교·정치·사상의 자유 아래 종교에 대한 극악한 탄압과 박해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탄압과 박해는 항상 약자와 소수에게 자행되었습니다.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사회에도 여전히 약자와 소수가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 역시 차별과 소외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듯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짊어져야 하는 순교의 현대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순교란, 약자와 소수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용기를 내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적 결단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순교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그 숭고한 뜻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이자, 일상에서 순교적 삶을 살 수 있는, 즉 실천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중세 그리스도교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저서 신학대전에서 순교가 성립되기 위한 요

소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육체적 죽음이 반드시 성립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그 자체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관련된 한에서만 칭찬받을만한 것이라고 말하며, 순교가 모든 행위 중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임이 명백하다 밝히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옛날과 달리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극단적 상황에 처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바로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약자와 소수에 대한 탄압과 억압에 대항하여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현대인들 또한 순교적 삶에 참여할 수 있을뿐 아니라 증언할 수 있을 것이며, 순교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뵐르츠 부르크 공소



뵐르츠 부르크 공소 2



뷔르츠 부르크 공소 미사



뷔르츠 부르크 공소 미사 2



뵤르츠부르크 공동체 식사



뵤르츠부르크 공동체 식사 2



뵤르츠부르크 공동체 미사 3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들을 얻은 것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 15-2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5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들을 얻은 것이다.

16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17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들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9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룩어 주실 것이다.

20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일 미사 안내

원헨 공동체

매주일 15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Kreuzkirche)

Kreuzstr. 10, 80331 München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KHG Erlangen 경당

Sieboldstr. 1, 91052 Erlangen

뵐르쯔부르그 공동체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KHG Würzburg 경당

Hofstallstr. 4, 97070 Würzburg

레겐스부르그 공동체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5시

Weiherweg 6A, 93051 Regensburg

공동체 사무실 안내

화, 목, 금 : 10:00 - 15:00

방문 시 카톡이나 전화로 먼저 연락
바랍니다.

Dachauerstr. 23 / 3. Stock

80335 München

Tel. 089 26 05 729

Fax. 089 26 01 83 29

Koreanischsprachige-Mission.

Muenchen@eomuc.de



『빛과 소금』은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licht.salz@gmail.com

빛과 소금 편집부

김수연 아가타
김진영 암브로시오
문석영 라파엘라
백효현 로사
서유리 카타리나
유재민 노엘